

# 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 표준화 계획

문화서비스표준과 공업연구원 육근성  
02)509-7252 yooksung@ats.go.kr

## 1. 개요

### 가. 배경

픽토그램(Pictogram)이란 언어, 민족,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림기호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 문제, 예산 중복 및 낭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부, 철도청, 감사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원이 픽토그램 표준화 총괄기관으로 조정되었다.

### 나. 기본방향

#### 1) ISO 7001(Public information symbols)

과 외국 규격을 참고하여 국가 정체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되, 기존 픽토그램을 일부 수용하거나 개작 또는 신규 개발하는 방향으로 규격을 제정한다. 2) 외형의 간결성, 내용의 함축성, 통용의 국제성을 고려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한다. 3)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목, 타 부처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우선 규격으로 제정하고, 필요로 하는 픽토그램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추가 제정한다.

## 2. 국내·외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해당 기술위원회(TC)는 TC 145(Graphical symbols)이며, 3개의 분과위원회(SC)로 구성되어 있다. SC 1(Public information symbols)에서는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SC 2(Safety identification, signs, shapes, symbols and colors)에서는 안

전표지를, SC 3(Graphical symbols for use on equipment)에서는 산업용 그림표지를 표준화하고 있다. 국제표준으로는 1993년 ISO 7001에 57개의 공공안내 그림표지가 제정되었으나 시대에 뒤떨어져 2001년 개정 작업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일본은 2002년 3월에 110개의 그림표지를 JIS Z 8210으로 제정하였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영국은 약 300개의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BS 8501로 제정하였고, 안전표지는 BS 5499 시리즈로 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지하철 등 30개(KS A 0901), 2002년에 장애인용 리프트 등 70개(KS A 0901-1, 0901-2)를 규격화하였고, 2004년 1월에 노약자, 임산부, 계단주의 등 100개(KS A 0901-3)를 추가 제정하였다.

한편, 우리가 개발하여 2003년 TC 145/SC 2의 ISO/CD 7010(작업장 및 공공장소의 안전표지)에 제출한 안전표지 6개가 최근 DIS 7010으로 채택되었고, TC 145/SC 1의 ISO 7001 개정작업에도 우리안을 제출하였다.

### 3. 추진계획

올해는 2001년도부터 추진해온 공공안내 그림표지 표준화 3개년 사업이 완료되는 해로 하반기에 인터넷 사용가능, 어린이 보호 등 100개를 신규로 표준화(별첨참조)하고, 지난 3년간 표준화한 총 300개의 그림표지를 수록한 CD를 제작·배포하고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TC 145/SC 2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Water safety에 관한 안전표지 표준화작업에 우리안을 제출하고, ISO 7001, 7010에 제출한 우리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우리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4. 기대효과

1) 우리 국민과 외국 방문객의 편의를 확대하고, 2) 지방자치단체간 퓹토그램 통일화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3) 우리의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국가위상이 제고됨 